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1]

이 창 성 / 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 머리말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썰을 소개로 설명한 글들이 별로 없어 “한국 크리스마스 썰 詳解”라는 책을 펴낼까 하고 있었으나, 부득이한 가정 형편으로 야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출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뜻으로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감히 글을 쓰게 됐으며, 몇차례에 나누어 연재를 할까 한다.

1.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썰의 약자

- 1). 해주구세요양원 시대 (1932-1940)……9종, S/S 1종
- 2). 과도 발행시대(1949, 1952)……문창모 박사 발행의 2종
- 3). 대한결핵협회 시대
 - a. 민간 인쇄소 시대(1953-1985)
(단, 한국조폐공사에서 다년간 인쇄한 적이 있음)
 - b. 한국조폐공사 시대(1986년 이후)

우리나라 크리스마스썰은 세계 최초의 썰이 1904. 12. 10일 덴마크의 우체국장이었던 아이날 홀벨(Einar Holboel) 씨의 창

안에 의하여 발행된지 28년 후인 1932. 12. 3일에 셔우드 홀 박사에 의해 발행을 개시하여 1940년까지 9종의 썰과 1종의 소형 쉬-트를 발행하였으나 썰 수집가는 1932년도의 초판, 재판과 1935년도에는 판식 I, II를 구분하고 있으며, 1940년도의 미발행에 그친 것까지 손꼽는다면 12종이되나 미발행 썰은 재고의 극소량으로 희귀하여 입수가 매우 힘든 까닭에 고급수집가만이 갖고 있으며, 이것은 종류로써 계상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뜻있는 보건계 인사와 문창모 박사에 의해 1949, 1952년에 발행한 썰은 6. 25전쟁 전과 전쟁이 끝날 무렵 혼란중에 발행한 까닭에 자료의 유실로 입수가 매우 힘들며, “환상의 썰”로 호칭하고 있다.

1953년 이후에는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어 민간 인쇄소에서 인쇄한 까닭에 많은 오작(Error)과 정상오쇄(Variety) 등이 있으나 33년에 걸쳐 인쇄 기술이 점차 향상 진보하였고, 1986년 이후에는 인쇄 기술의 혁신과 준유가증권 취급으로서 우표 대신에 첨부되어 실체된 것마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발행자 셔우드 홀(Sherwood Hall)박사의 생애



셔우드·홀 박사

홀박사는 1893. 11. 10에 독실한 감리교 의료전도사인 부모에게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박사는 평양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치료하느라 혹사로 열병에 걸려 결국은 일찍 세상을 떠나 서울 근교 한강변에 위치한 양화진 외인묘지에서 영면하고 있으며, 어머니인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박사도 남편과 같은 의료전도사로서 한국인을 깊이 사랑했으며, 우리나라 신체장애자 교육의 기초를 설립하신 분으로 1951년에 본국에서 세상을 떠나 한국에 남편과 손자와 딸이 묻힌 양화진 외인묘지에 잠들고 있고, 현재 대구 교육대학에 로제타(ROSETTA) 기념관이 세워져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소년시절을 조선땅에서 보낸 셔우드 홀은 1910년부터 의사로서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귀국하여 몇년간의 수학 끝에 의사 자격을 받은후 자기가 출생하였고 아버지가 묻혀 있는 조선땅으로 돌아와 외과의사인 마ريان 홀(Marian Hall) 박사와 결혼하여 2대 모두 부부가 같이 의료

전도사로서 기독교 사업에 헌신하며 이 땅에 최초의 결핵요양원인 해주구세요양원을 세우고 망국병이라 일컫는 결핵병의 박멸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1932년부터 시작하여 일제의 외국인 축출정책으로 안도로 떠나기 전인 1940년 사이의 9년간에 걸쳐 민속회화로써의 씨리-즈를 형성하면서 크리스마스 썰 및 복잡자엽서, 크리스마스 퍼즐 게임, 캘린더 등 크리스마스 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정열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이로서 “크리스마스 썰” 닥터(의사)라는 애칭을 지니게 되었다.

1984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결핵병 박멸의 공로자로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은 바 있는 홀 박사는 현재 캐나다에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 교포들로부터도 지극한 존경을 받고 있지만, 훗날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한국땅에 묻히길 유언해 놓고 있다하니 감동어린 생애라 아니할 수 없다.

3. 크리스마스 썰과 첨부약

“청진기와 더불어 한국에서”라는 셔우드 홀 박사의 자서전에는 “크리스마스 썰과 첨부약”이라는 장이 있는데, 김동열씨가 번역한 “닥터 홀의 조선회상”에는 크리스마스 썰이라고만 하고 첨부약을 삭제하고 말았으나, 1932년, 1933년의 발행 초기에는 크리스마스 썰을 인식시키는 계몽운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듯 하며, 크리스마스 썰을 사서 결핵의 환부에 붙이면 결핵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었다고 하니, 오늘 날에 생각하여 보면 그 웃지못할 넌센스라기 보다 만화वाद 같은 진풍경이 연출되었으

며,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써 당시 일반 대중의 썰에 대한 인식도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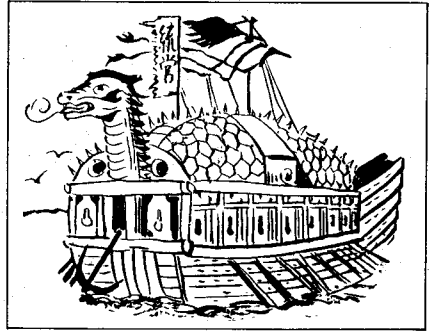
4. 홀 박사의 크리스마스 썰 발행의 구상

해주결핵요양원의 유력한 경제적 후원자였던 울버턴여사의 경제적 지원기간 만료와 함께 궁지 속에서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야 했는데, 마침 1930년 여름 본국에서의 안식년 휴가중에 어느 주일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미국에 크리스마스 썰의 아이디어를 소개한 비셀(Emily P. Bissel)양으로부터 덴마크의 한 우체국장이었던 아이날 홀벨의 크리스마스 썰 창안 뒤의 성공담과 미국의 썰 보급에 따른 아이디어에 힘 입어 발행을 결심하고 귀국후 썰 발행을 시작한 것이다.

5. 처음 도안은 거북선

처음 크리스마스 썰 도안의 선택에 있어서 홀박사는 반드시 조선백성들에게 열성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진왜란때 용감히 왜적을 무찌른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에 국가의 적인 결핵을 향해 대포를 배치한 도안이었으나 당시 일본 치하의 식민지였던 상황에서 그 시대의 위정자의 허가를 얻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까닭에 공격이 방어로 변경되어 불만스러웠지만 조선의 방어력을 나타내는 남대문으로 결정하였다.

남대문은 조선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것은 조선의 성벽을 나타내고 크리스마스 썰에 나타난 남대문은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임을 상징했지만, 홀



1952년 진해만에서 일본에 대항한 한국의 거북선

박사가 9년동안 발행한 9종의 기본형은 한국의 풍속이 일관하고 있는데 유일의 예외인 인물이 나오지 않는 특이한 도안이 되었다.

II. 본문

1. 1932년의 남대문 도안의 썰

남대문 도안의 썰은 1932년에 발행된 초판과, 처음 썰의 발행량의 극소로 인하여 미처 입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썰 발행 5주년인 1936년에 재판이 발행되었다. 초판과 재판은 홀 박사도 그것을 확실히 구별치 못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재판을 처음 발행된 썰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썰 도안의 정밀한 안목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다만 남대문 도안이라는 큰 견지에서 기술한 듯 하다.

2 초판 남대문 썰

Pane (2×5=10매)×5장의 50매가 1권으로 되어 있는 썰첩(Booklet)만을 발행한 매우 간결한 썰로서 약간의 다양한(V

ariety) 소개만이 소개되어 있다.

정상적인 썰첩의 Pane은 왼쪽에 여백이 있으며, 이곳에 Staple로 편철돼 있고 Pane의 썰 사이에는 천공이 돼있으나 사방 절단면에는 천공이 안되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 썰은 발행량의 극소로 현재는 존재 수량이 극히 감소하여 입수가 어려우며, 전지 대신 썰첩의 Pane만이 존재하고 Pane을 작성하는 과정의 전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큰 특징이다.

1). 사방천공 Pane

썰첩의 Pane 절단면 사방에 천공이 있는 것이 존재하며, 매우 희귀하고 높은 평가이다.

2). 표지의 표면 도안이 이중인쇄

표지의 표면은 그림(Fig-3)과 같이

전면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영어로 글씨를 적고 뒷면은 태양을 도안하여 한문과 한글로 설명한 것과 표지의 도안이 이중 인쇄된 것이 있으나, 정상적인 표지의 입수도 매우 어렵다.

3. 재판 남대문 썰

재판 남대문 썰은 처음의 초판을 입수 못한 사람들의 요망에 응하기 위하여 썰 발행 5주년에 발행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으나 초판의 원판이 마모하여 전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수정을 하여 재발행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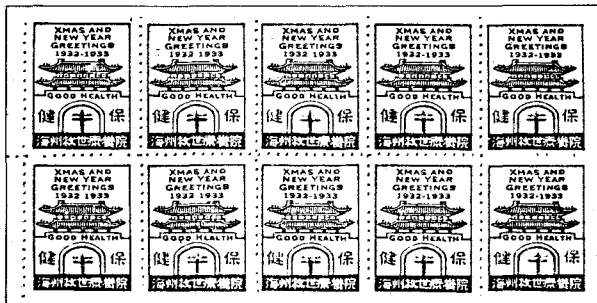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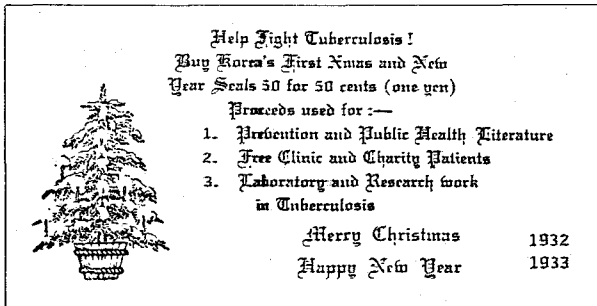
Booklet Pane은 초판과 같이 왼쪽에 여백이 있으나 풀과 실에 의하여 꿰매져 있는 것이 초판과 다른 점이다.

현존하고 있는 남대문 도안 썰은 거의 대부분이 재판으로서 입수가 용이하고, 썰첩 이외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것이 있다.

- 1) 썰첩 : Pane(#5×2) 5매-썰첩 표지에 재판(Reprint) 명시.
- 2) 25매 전지(#5×5)-하부 번지에 재판(Reprint)이라는 글자 명시.

- a. 횡간무공
- b. 종간무공

- 3) 5×8=40매
- 4) 15×8=120매
- 3), 4)항은 썰첩 제작 과정의 Pane의 4 Pane, 12 Pane의 썰첩이 제작되지 않고 유출된 것으로 그 증거는 상부에서 짚



(Fig-3) 위 : 표지, 아래 : 썰 Pane

수열에 무공이 되어 있으며, 재판에 사용되고 있는 인쇄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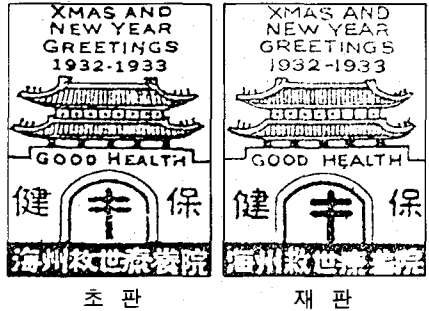
- 1). 1936년의 쉐 발행 5주년 기념 미니 포스터(Mini Poster)
- 2). 1936년 발행의 기념 소형 슈트(S/S)

주)Green World Seal Catalogue에는 1937년 발행이라고 오기되어 있음.

4. 초판과 재판의 식별 분류 및 자료(DATA)

초판과 재판을 식별 구별하는 가장 대

표적인 것은 일견 해주구세요양원의 養과 院이 떨어져 있는 것이 초판이고 붙어있는 것이 재판이다.



구 분	초 판	재 판
발행년도	1932년	1936년
도안내용	남 대 문	남 대 문
도 안 자	셔우드 홀(Sherwood Hall)	셔우드 홀(Sherwood Hall)
인 면	18.5×24mm	18.5×24mm
천 공	11 1/4	11 1/4
Pane구성	#5×2매	#5×2매
Pane규격	120×56mm	116.5×55mm
인쇄소	YMCA 인쇄소	보진재
특 징	1. AND의 'D'가 'H'에 가깝게 등글고 작다. 2. 해주구세요양원의 글씨체가 가늘고 선명하며, 글자간격이 균일하다. 3. 바탕색이 재판보다 짙은 연두색으로 산뜻한 감이 있다.	1. AND의 'D'가 선명하고 초판보다 크다. 2. 해주구세요양원의 글씨체가 굵으며 療, 養이 뭉개져 있고, 養과 院이 붙어 있으며, 위로 치켜 올라가 있다. 2. 담연두색으로서 색이 퇴색한 감이 있다.

5. 참고문헌

- 1).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1978, Mcl Associates, Mclean Verginia By Sherwood Hall
- 2). The Story of Krea's First Christmas Seal, 1933, The Korea Mission Fieed -Ditto-
- 3). Green's World Seal Catalogue.....By HENRY IRWIN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 4). 닥터 홀의 조선희상, 金東悦 譯, 1984, 東亞日報社 卄